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중년의 죽음태도 유형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

신 이 레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죽음태도의 하위 요인(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을 기준으로 중년의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각 프로파일 간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관여(32.5%)’, ‘실존적 수용(9.7%)’, ‘불안 회피(52.3%)’, ‘현실 도피적 수용(5.5%)’이라는 네 유형이 도출되었다. ‘비관여’ 유형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는 태도를, ‘실존적 수용’ 유형은 내세 믿음에 기반한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불안 회피’ 유형은 죽음에 대해 강한 공포와 회피를 보였고,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은 죽음을 고통의 도피처로 인식하였다. 또한 유형별로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비관여’ 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적 웰빙을, ‘실존적 수용’ 유형은 가장 높은 삶의 의미와 죽음 대처 유능감을 보인 반면, ‘불안 회피’ 및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은 높은 노화불안과 낮은 삶의 의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의 죽음태도가 다양한 양상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년, 죽음태도, 노화불안, 삶의 의미, 죽음 대처 유능감

* 본 연구는 신이레(2025)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중년 성인의 죽음태도 유형과 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NRF-2023S1A5C2A02095195).

† 교신저자 :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2787,

E-mail : eunkim@ajou.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는 죽음을 통해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한다.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이러한 자각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실존적 불안을 유발하며, 이는 곧 죽음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죽음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서이지만,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황보경, 심예린, 2022). 특별히 중년기는 유한성을 체감하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삶의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Breitbart, 2017).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죽음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과 준비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Wong과 Tomer(2011)는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하고, 현재의 삶을 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즉, 죽음 인식은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중년은 죽음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때의 죽음태도는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의미 형성에 깊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중년에 어떤 죽음태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중년기 심리적 적응과 삶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죽음태도(death attitude)’는 개인이 죽음에 대해 갖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김지현, 민경환, 2010; Wong et al., 1994). Wong 등(1994)은 죽음공포(fear of death), 죽음회피(death avoidance),

도피수용(escape acceptance), 접근수용(approach acceptance), 중립수용(neutral acceptance)으로 구성된 죽음태도척도-개정판(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을 개발하여 죽음태도를 설명하였다. 우선, 죽음공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강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죽음회피는 죽음과 관련된 생각이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태도로, 죽음을 불편한 주제로 간주하며 이를 가능한 일상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셋째, 도피수용은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넷째, 접근수용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중립수용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하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시각에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초기의 죽음태도 연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수용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관점이 부각되면서 죽음 수용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Littlefield & Fleming, 1985). 의료 및 간호 분야에서는 임종환자를 자주 대하는 의사, 간호사,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죽음 불안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오주용, 2023), 심리학 분야에서는 죽음 불안과 죽음 수용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뤘다. 죽음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고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낮았으며(김지현, 민경환, 2010; 황보경, 심예린, 2022), 이에 반해, 죽음 수용은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이화진, 정영숙, 2018; Sarpađi & Yiğit, 2025). 최근에는 죽음태도가 물질주의, 연령주의, 사회적지지 등 환경적 요인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며(박도위, 장유진, 2024; 이소정, 2025; 이유신, 2024),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도록 돕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오진덕 등, 2025).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죽음태도의 하위요인(예, 죽음공포, 회피, 수용)과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변수 중심(variable-centered) 접근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한 개인 안에 공존하는 다양한 죽음 관련 태도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나타나는지, 그 조합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과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수준이 높으면서도, 중립수용도 높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죽음에 대한 회피 경향이 높으면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접근수용도 높을 수 있다. 또한, 한국판 DAP-R 연구에서는 수용적 태도의 해석이 원칙도와 다르게 나타나, 동일한 죽음태도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오주용, 안도연, 2023). 예를 들어, 도피수용은 죽음공포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아 수용보다는 도피적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났고, 접근수용과 중립수용 역시 심리적 안녕과의 관련성이 원칙도에 비해 낮아 각 수용 차원의 의미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태도가 긍정-부정의 이분법적 차원으로 단순화되기 어렵고, 개인이 죽음공포, 회피, 다양한 형태의 수용태도를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Wong et al., 1994).

지금까지 개인 중심(person-centered) 접근을

활용하여 죽음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나, 선행연구들에서 죽음태도의 뚜렷한 하위유형이 확인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Ma 등(2024)은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고, 5개의 죽음 태도 유형(건강한[Healthy], 수용적인[Acceptant], 무관심한[Indifferent], 역설적인[Paradoxical], 회피적인[Avoidant])을 도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LPA를 실시하여 5개의 집단(중립적 수용, 복합적 수용, 거부적, 양가적, 모호한)을 도출하였다(안주현, 정남운, 2025). 그러나 이 연구들은 청년이나 전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어, 죽음 인식이 심화되는 중년기만의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년기는 생물학적 노화, 자녀의 독립, 부모의 죽음 경험,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죽음을 현실적인 과제로 마주하게 되는 시기다(이화진, 정영숙, 2018). 이 과정에서, 많은 중년은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라는 이중 부담, 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연으로 인한 은퇴 불안 등으로 죽음을 성찰할 여유가 부족하다(김은정, 2020; 변금선 2024; 최경화, 유나현, 2023). 이러한 상황은 죽음을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경험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중년이 청년이나 노인보다 죽음공포에 더 크게 노출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황보경, 심예린, 2022; Gesser et al., 1988). 하지만 모든 중년이 죽음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부모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죽음을 더 생생하게 인식하며 불안이 커지기도 하지만(김현숙, 김봉환, 2021), 또 다른 일부는 삶의 유한성을 수용하며 내적 성숙과 가치 재정립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김정하, 김혜연, 2025). 즉, 중년의 죽음태

도는 공포와 회피에서부터 수용과 성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중년 집단의 죽음태도를 유형화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 접근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활용하여 중년 성인의 죽음태도의 다차원적 패턴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프로파일에 따라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네 변인은 선행연구들에서 죽음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주요 심리적 요인들이다. 먼저, 노화불안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화를 체감하기 시작하는 중년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남경민, 2017). 둘째, 삶의 의미는 죽음 수용과 웰다잉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황보경, 심예린, 2022). 셋째, 정신적 웰빙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삶의 질 전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조용기, 2016). 넷째, 죽음 대처 유능감은 죽음에 실제로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으로, 죽음과 관련된 표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지현, 민경환, 2010; Robbins, 1994).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네 변인은 죽음과 삶에 대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을 포괄함으로써, 중년의 죽음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노화불안은 개인이 노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실, 외모 변화, 심리적 불안정,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Lasher & Faulkender, 1993).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경험하는 노화불안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희, 신순옥, 2014; 김신미, 김순이, 2008; 김재희, 김옥, 2014). 또한 노화불안은 죽음태도와도 상관이 있는데,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도 높고, 반대로 죽음 불안이 클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은아, 박기환, 2021; Chonody & Teater, 2021). 이렇듯 노화불안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하여 중년의 시기에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유한성에 대한 신호라는 점에서 중년의 죽음태도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Becker(2006)는 이러한 유한성이 중년기에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 결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 방향성,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며(Steger, 2012), 본 연구에서는 그 구성 요소 중 ‘의미 존재’와 ‘의미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로 정의하였다(Steger et al., 2006). 의미 존재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 추구는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의미한다(원두리 등,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 결여는 우울과 불안(유성경 등, 2014), 자살 사고 및 약물 남용(Guo et al., 2024)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삶의 의미 증만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 심리적 웰빙, 심리적 고통 완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라, 신희천, 2010; Park & George, 2013; Wang et al., 2021). 삶의 의미는 죽음태도와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각할수록

죽음공포가 낮고 죽음 수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죽음 수용은 삶의 의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남희선, 이영호, 2014; 이효진, 박희현, 2024). 따라서 삶의 의미는 죽음의 위협을 재해석하고 수용을 높여, 삶과 죽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죽음태도는 삶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신적 웰빙과의 관련성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웰빙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찬조, 2012). 또한, 죽음태도와의 관계에서 죽음 수용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중립수용이 높은 개인은 삶에 대해 더 큰 목적의식과 감사함을 경험했으며, 이는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켰다(Terva-Niemela, 2020; Wong & Tomer, 2011). 또한, 정신적 웰빙이 높은 개인일수록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중립수용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숙정, 이정미, 2017; 이정은, 유지영, 2018).

마지막으로, 죽음 대처 유능감은 죽음이나 상실의 상황에서 자신 또는 타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다(Bugen, 1980-1981).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중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이은주, 2025), 중년기는 부모의 죽음을 잘 대처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역량, 즉 죽음 대처 유능감이 특히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죽음 대처 유능감이 중년이나 노인의 심리적 웰빙 및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ry, 2001; Fry & Debats, 2002). 김

지현과 민경환(2010)은 노년기 죽음태도의 하위요인 중 죽음공포와 중립수용이 죽음 대처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그 과정을 직면하려는 태도가 죽음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립수용이 죽음 대처 유능감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죽음을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정영숙, 이화진, 20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죽음태도는 공포, 회피, 수용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개인에 따라 이러한 태도의 조합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죽음태도는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 등 중년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을 토대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프로파일 간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의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에 따라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는가? 둘째,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간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만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년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 절차,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일주일 간 수집되었으며, 총 5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은 약 13분 정도 소요되었고, 모든 문항은 필수 응답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500명의 응답이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설문 응답 완료 후 참여자에게는 설문조사 업체의 보상 체계에 따라 8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1.67세($SD=7.13$)였고 성별은 남성 250명(50.0%), 여성 250명(50.0%)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도구

죽음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죽음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ong 등(1994)이 개발하고 오주용과 안도연(2023)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죽음태도 척도-개정판(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음에 대한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한다. 죽음공포는 죽음을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며(예, “죽음이 암울한 일이라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죽음회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예,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한다.”). 도피수용은 죽음을 고통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하며(예, “죽음은 내 모든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접근수용은 사후 세계나 내세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바탕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죽은 후에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중립수용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두려움이나 기대 없이 받아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별	남	250	50	결혼 여부	기혼	374	74.8
	여	250	50		미혼	90	18.0
연령대	40대	200	40		이혼 혹은 별거	28	5.6
	50대	200	40		사별	8	1.6
	60대	100	2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76	15.2
거주 형태	독거	107	21.4		대졸	372	74.4
	자녀와 거주	60	12.0		대학원졸 이상	52	10.4
	배우자와 거주	85	17.0				
	배우자, 자녀와 거주	248	49.6				

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예,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사건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태도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주용과 안도연(2023)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죽음 공포 .89, 죽음회피 .85, 도피수용 .87, 접근수용 .93, 중립수용 .72였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죽음공포 .80, 죽음회피 .67, 도피수용 .73, 접근수용 .85, 중립수용 .6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공포 .89, 죽음회피 .87, 도피수용 .86, 접근수용 .93, 중립수용 .77로 나타났다.

노화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하고 김숙남 등(2008)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노화불안 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 4개의 하위요인(노인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숙남 등(200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등(2004)이 개발하고 원두리 등(2005)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 2개의 하위요인(의미 발견, 의미 추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Keyes 등(2008)이 개발하고 임영진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 3개의 하위요인(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척도(0=전혀 없음, 5=매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93였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죽음 대처 유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죽음 대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ugen(1980-1981)이 개발하고 김지현(2008)이 한국어로 번안한 죽음 대처 유능감 척도(Coping with Death Scale [CD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또는 타인의 죽음에 대처할 수 있다는 지각된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Mplus 7.0으로 수행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DAP-R의 다섯 하위요인(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을 지표 변수로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수행하였다. 모형 선정은 AIC, BIC, SABIC의 감소, Entropy의 증가, 그리고 BLRT의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셋째, 도출된 잠재집단 간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공변량으로 통제된 후 다변량 공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죽음태도 간 상관을 살펴보면,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r=.65, p<.01$)이 나타나,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회피 경향도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죽음공포와 도피수용($r=.17, p<.01$), 죽음회피와 도피수용($r=.17, p<.01$), 죽음회피와 접근수용($r=.16, p<.01$), 도피수용과 접근수용($r=.24, p<.01$), 도피수용과 중립수용($r=.11$,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1	1.2	1.3	1.4	1.5	2	3	4	5
1.1. 죽음공포	1								
1.2. 죽음회피	.65**	1							
1.3. 도피수용	.17**	.17**	1						
1.4. 접근수용	.03	.16**	.24**	1					
1.5. 중립수용	-.34**	-.28**	.11*	.03	1				
2. 노화불안	.47**	.26**	.21**	-.15**	-.06	1			
3. 삶의 의미	-.12**	-.10*	-.20**	.24**	.22**	-.29**	1		
4. 정신적 웰빙	-.08	.08	-.15**	.30**	.02	-.37**	.48**	1	
5. 죽음 대처 유능감	-.17**	-.08	.18**	.38**	.30**	-.22**	.36**	.42**	1
M	3.57	3.44	3.75	3.52	2.98	3.26	4.20	2.00	3.02
SD	1.19	1.19	1.31	1.40	.55	.50	.91	.95	.43

주. * $p<.05$, ** $p<.01$.

$p < .05$) 간에도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용적 태도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립수용은 죽음공포($r = -.34, p < .01$) 및 죽음회피($r = -.28, p < .01$)와 부적 상관관을 보여,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인식할수록 죽음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죽음태도와 심리적 특성 간의 상관관을 살펴보면, 노화불안은 죽음공포($r = .47, p < .01$), 죽음회피($r = .26, p < .01$), 도피수용($r = .21, p < .01$)과 정적 상관, 접근수용($r = -.15, p < .01$)과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삶의 의미는 죽음공포($r = -.12, p < .01$), 죽음회피($r = -.10, p < .05$), 도피수용($r = -.20, p < .01$)과 부적 상관, 접근수용($r = .24, p < .01$) 및 중립수용($r = .22, p < .01$)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정신적 웰빙은 도피수용($r = -.15, p < .01$)과 부적 상관, 접근수용($r = .30, p < .01$)과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과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죽음 대처유능감은 죽음공포($r = -.17, p < .01$)와 부적 상관관, 도피수용($r = .18, p < .01$), 접근수용($r = .38, p < .01$), 중립수용($r = .30, p < .01$)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죽음태도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을 기준으로 2개에서 5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는 AIC, BIC, SABIC,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엔트로피(ENTROPY)값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AIC, BIC,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적합도는 의미하며(Nylund et al., 2007). BLRT의 p 값이 유의하면 해당 모형(k 집단)이 이전 모형($[k-1]$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더 적합함을 뜻한다(Dziak et al., 2014). 또한, 집단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은 일반적으로 .80 이상일 때 양호한 것으로 간주된다(Allua, 2007; Celeux & Soromenho, 1996). 본 연구에서는 2개 집단 모형과 4개 집단 모형의 BLRT p 값이 각각 유의수준 .05와 .0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중 4개 집단 모형만이 엔트로피 .80 이상을 충족하였다. AIC, BIC, SABIC은 집단 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BLRT p 값과 엔트로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개 집단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잠재변수 양상

도출된 4개의 잠재프로파일이 죽음공포, 죽

표 3. 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				
	AIC	BIC	SABIC	ENTROPY	BLRT p -value	1	2	3	4	5
2	15816.289	15883.723	15832.938	0.716	0.0000	58.6	41.4			
3	15743.147	15835.868	15766.039	0.730	0.1339	30.8	56	13.2		
4	15673.783	15791.792	15702.918	0.804	0.0039	32.5	9.7	52.3	5.5	
5	15608.501	15751.798	15643.880	0.791	0.2328	21	5.8	9	11	53.2

표 4.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잠재변수 양상

	비관여(A) (n=158)		실존적 수용(B) (n=50)		불안 회피(C) (n=265)		현실 도피적 수용(D) (n=27)		F	사후검정	
	M	SD	M	SD	M	SD	M	SD		Games- Howell	Scheffe
죽음공포	2.86	.88	2.41	.66	4.35	.85	2.20	.86	169.12***	C>A>B=D	-
죽음회피	2.69	.83	2.48	.77	4.24	.84	1.83	.65	186.79***	-	C>A=B>D
도피수용	2.69	.98	3.82	1.27	4.12	1.03	5.93	.85	107.05***	D>B=C>A	-
접근수용	2.59	.93	5.89	.85	3.76	1.10	2.33	.87	153.17***	-	B>C>D=A
중립수용	5.36	1.04	5.83	.58	4.90	.83	6.43	.52	38.88**	D>B>A>C	-

주.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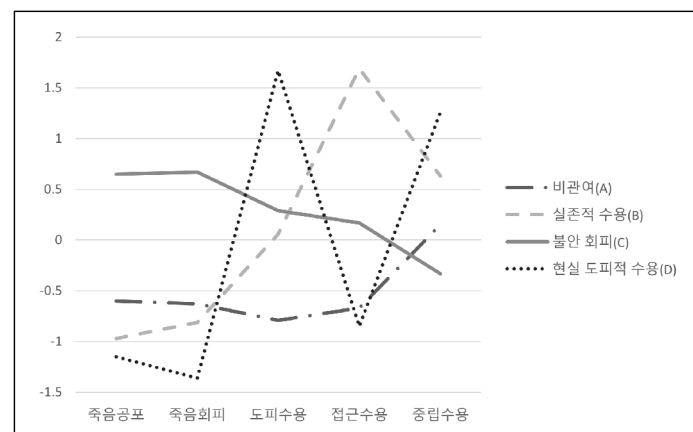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별 잠재변수 양상

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사후 분석을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한 결과, 죽음공포, 도피수용, 중립수용에서는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어($p < .05$),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적용하였고, 죽음회피와 접근수용에서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p > .05$), Scheffé 사후검정을 적용하였다. 관련 결과는 표 4 및 그림 1에 제

시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 A는 전체의 32.5%로,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은 모두 평균 이하이고, 중립수용만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과 비교한 결과, 이 유형은 유형 C보다 죽음공포와 죽음회피가 유의하게 낮았고, 도피수용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중립수용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유형 D와 B보다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처럼 유형 A는 죽음을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회피하

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아 ‘비관여(Detachment)’로 명명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B는 전체의 9.7%로, 세 가지 수용 태도 모두 평균 이상이었고, 죽음공포와 죽음회피는 평균 이하였다. 다른 유형과 비교한 결과, 접근수용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중립수용은 유형 D보다는 낮았지만 유형 A 및 C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유형 B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며, 죽음을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함을 뜻한다. 이에 이 유형은 ‘실존적 수용(Existential Acceptance)’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잠재프로파일 C는 52.3%로,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이 모두 평균 이상이었었는데, 특히, 죽음공포와 죽음회피가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중립수용은 낮았다. 이는 이 유형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유형을 ‘불안 회피(Anxious Avoidance)’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D는 5.5%로 도피수용, 중립수용은 평균 이상이고, 죽음공포, 죽음회피, 접근수용은 평균 이하였다. 이 유형은 도피수용과 중립수용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죽음회피가 가장 낮았다. 죽음공포는 유형 B와 차이가 없었고, 접근수용은 유형 A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유형이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유형을 ‘현실 도피적 수용(Realistic Escape Acceptance)’으로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고, 공변량으로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였다. 우선 MANCOVA의 기본 가정인 종속변수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ox's test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분산이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24, p=.000$). MANCOVA 결과, 죽음태도 유형에 따라 나눈 네 집단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298, $p<.001$). 반면, 성별($p=.778$)과 연령대($p=.119$)의 주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아, 두 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그림 2처럼, 노화불안($F=20.17, p<.001$), 삶의 의미($F=26.98, p<.001$), 정신적 웰빙($F=11.51, p<.001$), 죽음 대처 유능감($F=13.70,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어서 유형 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노화불안, 삶의 의미, 죽음 대처 유능감에서는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어($p<.05$),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적용하였고, 정신적 웰빙에서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p>.05$), Scheffé 사후검정을 적용하였다. 먼저, 노화불안에서는 불안 회피(C) 유형이 비관여(A) 유형과 실존적 수용(B)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현실 도피적 수용(D) 유형은 실존적 수용(B)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삶의 의미는 실존적 수용(B) 유형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고, 현실 도피적

표 5.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

	비관여(A) (n=158)		실존적 수용(B) (n=50)		불안 회피(C) (n=265)		현실 도피적 수용(D) (n=27)		F	사후검정	
	M	SD	M	SD	M	SD	M	SD		Games- Howell	Scheffe
노화불안	2.98	.04	2.85	.07	3.27	.03	3.23	.09	20.17***	C>A, C>B, D>B	-
삶의 의미	4.82	.07	5.56	.13	4.52	.06	3.81	.18	26.98***	B>A>C>D	-
정신적 웰빙	2.05	.07	2.43	.13	1.98	.06	1.12	.18	11.51***	-	A>D, B>C>D
죽음 대처 유능감	3.11	.04	3.48	.07	3.02	.03	3.34	.10	13.70***	B>A=C	-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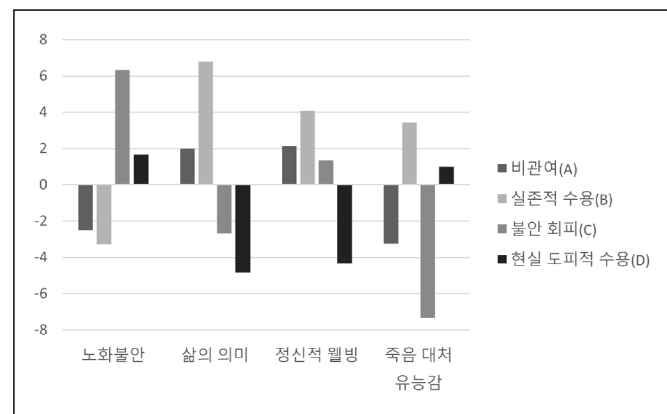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

수용(D) 유형이 가장 낮았다. 비관여(A) 유형은 불안 회피(C) 및 현실 도피적 수용(D)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불안 회피(C) 유형은 현실 도피적 수용(D)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정신적 웰빙은 비관여(A) 유형은 현실 도피적 수용(D)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고, 실존적 수용(B) 유형은 불안 회피(C) 및 현실

도피적 수용(D)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불안 회피(C) 유형은 현실 도피적 수용(D)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죽음 대처 유능감은 실존적 수용(B) 유형이 비관여(A) 유형과 불안 회피(C)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비관여(A) 유형과 불안 회피(C)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 태도의 5가지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고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LPA를 실시한 결과, 총 네 개의 유형(비관여, 실존적 수용, 불안 회피, 현실 도피적 수용)이 도출되었다. 이 중 비관여 유형은 전체의 32.5%를 차지하였으며, 죽음 공포, 죽음 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의 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였고, 중립수용만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의 약 3분의 1이 죽음을 강하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는 과도기적·비관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잠재프로파일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모호형(28.5%)’ 집단(안주현, 정남운, 2025)과 대학생 ‘무관심형(43.5%)’ 집단(Ma et al., 2024)이 보고된 바 있으며, 죽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비관여 유형과 유사하다. 다만, 선행 연구의 해당 집단들은 공통적으로 중립수용이 가장 낮았던 반면, 본 연구의 비관여 유형은 중립수용이 평균 이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중년이 청년이나 일반 성인보다 죽음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그 인식이 아직 개인적 수용으로까지 내면화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많은 한국의 중년들이 삶의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부족하며(신경일 등, 2017),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수 있다(안애희 등, 2025; 이재원 등, 2019).

둘째, 실존적 수용 유형은 전체의 9.7%로, 접근수용이 가장 높고 중립수용과 도피수용이 평균 이상이며 죽음공포와 죽음회피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중년 중 일부가 죽음을 내세에 대한 신념과 연결 지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세 가지 수용 태도를 동시에 갖는 집단이 도출된 바 있으며, 중립수용과 접근수용의 조합이 도피수용 태도가 지니는 위험을 희석해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안주현, 정남운, 2025). 이 유형은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이 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죽음 불안이 낮고 접근수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소희 등, 2021). 또한, 종교적 믿음이나 실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감소시키며, 영성이 높을수록 죽음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다수 확인되었다(Florian & Kravetz, 1983; Sarpađagi et al., 2025).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영적 자원이 죽음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불안 회피 유형은 전체의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죽음공포와 죽음회피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중년 집단 내에서 죽음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동시에, 그 인식이 부정적 정서와 회피 반응으로 이어지는 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거부적’(안주현, 정남운, 2025), ‘역설적’(Ma et al., 2024) 집단이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었으나, 두 집단의 비중 모두 전체의 약 10%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중년기에 신체적 노

화·질병 경험, 부모나 지인의 사망 등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자신의 사후 가족이 겪을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 역시 죽음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연화, 2011; 신경일 외, 2017; 임송자, 송선희, 2012; 황보경, 심예린, 2022).

넷째,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은 전체의 5.5%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유형은 죽음공포와 죽음회피가 가장 낮고 도피수용과 중립수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피수용 점수가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는데, 도피수용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삶의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수용으로 해석된다(성진숙, 2013).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양상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장원(2022)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살 욕구가 높은 집단을 확인하였으며, 오주용과 안도연(2023) 또한 낮은 공포와 회피, 높은 도피수용을 함께 지닌 집단이 잠재적 위험군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다변량 공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이 유형은 삶의 의미와 정신적 웰빙이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 도피적 수용이 단순한 수용이라기보다 부정적 정서상태와 관련된 수용 형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중년기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도피적 수용이 자살 사고나 우울과 같은 부적응 지표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도출된 네 유형의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노화불안에서 불안 회피 유형이 비관여 유형과 실존적 수용 유형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죽음불안이 클수록 노화불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예상된 결과이다(남경민, 2017; Benton et al., 2007). 또한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도 실존적 수용 유형에 비해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은 죽음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통제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년 성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노화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김정하, 김혜연, 2025). 즉, 노화를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로 보기보다는 삶이 점차 악화된다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중년기는 경제적 부담, 자녀 독립,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이은영, 왕은자, 2017), 삶의 고통을 느끼는 이들에게 노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을 더욱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실존적 수용 유형은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하기 때문에, 노화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수용하며, 그 결과 노화불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남경민, 2017; 양성순, 2020).

둘째, 삶의 의미는 실존적 수용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영성 자체가 삶에 대한 의미를 지니며, 의미발견이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영성과 상관이 높다(채선희, 김진숙, 2020). 본 연구 결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삶의 의미를 지닌 개인이 실존적 수용이 높거나 혹은 높은 실존적 수용이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각하며(남희선, 이영호, 2014), 영적 안녕감과 자기수용을 매개로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이효진, 박희현, 2024).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한계와 결점을 수용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은 네 유형 중 삶의 의미가 가장 낮았다. 이는 삶의 의미 결여가 존재적 공허감과 미래에 대한 무기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도피적 형태의 죽음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García-Alandete et al., 2009; Wong, 2007).

셋째, 정신적 웰빙은 비관여 유형 및 실존적 수용 유형이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죽음을 긍정적이거나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수규, 2025; 이효진, 박희현, 2024). 흥미롭게도, 불안 회피 유형의 정신적 웰빙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죽음공포와 죽음회피가 웰빙을 저하한다는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중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년의 경우 죽음에 대한 불안과 회피가 반드시 부정적 의미를 의미하기보다는, 노화나 상실을 인식하면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어적 적응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박연화, 2011; 신경일 등, 2017). 즉, 죽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히려 일시적인 안정감이나 통제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을 불안이 항상 부정적인 정서로만 작용하기보다, 연령과 심리적 맥락에 따라 적응적 기능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은 도피수용과 중립수용을 동시에 지니는 집단으로, 최근 죽음태도에 대한 LPA 연구에서도 이러한 양가적 태도가 정서적 갈등과 내적 긴장을 유발하며, 죽음에 거부적인 태도보다 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주현, 정남운, 2025).

마지막으로, 죽음 대처 유능감은 실존적 수용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는 죽음을 긍정적 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수록 죽음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중립수용과 접근수용, 도피수용이 죽음 대처 유능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대처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정영숙, 이화진, 2014).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수용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근수용이 내세관, 종교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를 가진 개인은 비종교인에 비해 삶의 고난과 죽음을 신앙적 틀 안에서 해석하며 이를 내세로의 이행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심리적 통제감과 수용 능력이 높을 수 있다(김연순, 2022). 한편, 죽음 대처 유능감과 관련하여 비관여 유형과 불안 회피 유형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관여 유형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회피는 낮지만,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는 자기효능감도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죽음이란 주제에 강한 정서적 반응 없이 외면하거

나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국내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하거나 임종 돌봄 계획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수록 죽음에 대한 모호함이 증가하여 관련 대처 효능감이 떨어졌다(Hong et al., 2018). 또한, 죽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가진 집단이 자기수용, 환경지배력, 자율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안주현, 정남운, 2025). 중년기는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나 회피적 태도는 실제 상황에서 더 큰 정서적 충격이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중년 집단을 대상으로 죽음태도의 잠재유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연구가 성인 전반을 포괄해 중년만의 특징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죽음 인식과 불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비관여 유형과 불안 회피 유형에서 중년만의 특징이 잘 나타났다. 비관여 유형은 죽음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지니진 않으나,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중년이 죽음을 현실적인 주제로 체감하는 만큼, 높은 죽음 불안을 경험하는 중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도출된 잠재유형별로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를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선행 LPA 연구가 대학생의 심리적 웰빙, 심리적 위기 취약성 등 제한된 변인에 국한되었다면, 본 연구는 중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죽음태도에 따른 다양한 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셋째, 죽음태도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개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불안 회피 유형에는 죽음에 대한 점진적인 탐색과 표현 중심의 개입이,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에는 정서 조절과 자살 예방 중심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네 가지 죽음태도 유형은 중년기 내담자를 이해하고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비관여 유형의 경우, 죽음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죽음에 대한 직면과 수용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상담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김은숙, 2020). 예를 들어, 실존 중심 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지금-여기에 집중하여 삶의 의미를 찾음과 동시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때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반응(예: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실존적 수용 유형은 이미 죽음을 실존적인 의미와 연결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념과 삶의 의미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상담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앙이나 영적 가치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접근, 기도나 묵상과 같은 영성 기반 활동을 포함한 웰다잉 교육은 이들의 삶의 방향성과 죽음 수용 태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불안 회피 유형은 중년 집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죽음공포와 회피가 가장 높았다. 이는 신체 변화, 상실 경험, 가족 책임 증가 등 중년기 스트레스 요

인과 결합될 때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담 초기에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건강한 노화, 역할 변화 등 중년기의 삶의 전환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인지행동치료 및 실존주의 치료 기법에 따라 죽음 불안을 점진적으로 다루고 이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Menzies,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거부적인 집단에는 불안 완화 기법, 정서적 안정 훈련 등의 지원이 안정되고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된 바 있다(안주현, 정남운, 2025). 넷째,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은 삶의 고통이 누적되어 있어 중년기의 우울·절망·무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죽음을 고통 해소의 수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담 초기에 우울, 불안, 자살 사고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위기 개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마음챙김 훈련, 대인관계 효과성 기술을 통해 정서 조절 및 타인과의 연결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Khodabakhshi-Koolae et al., 2024). 또한, 글쓰기 치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일상적 삶에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홍단비, 2025).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횡단적 설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죽음태도와 관련 심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죽음태도의 변화 양상과 심리적 요인 간의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종교성이나 영성과 같은 개인차 요인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배경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수용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이숙주, 2010), 개인의 영적 자원에 따라 심리적 결과의 방향도 달라졌다(이효진, 박희현, 202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교성·영성을 함께 측정하여 죽음태도의 잠재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도출된 현실 도피적 수용 유형은 전체 표본의 약 5%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잠재집단 내 모든 집단의 표본이 5% 이상이 되면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므로(Jung & Wickrama, 2008) 이 집단은 중년 집단 내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독특한 죽음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여자 대상으로 이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년의 죽음태도에 따라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 간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잠재유형별로 노화불안, 삶의 의미, 정신적 웰빙, 죽음 대처 유능감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향후 차별화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죽음태도의 다양한 양상과 그 심리적 의미에 관한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찬조 (2012).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웰빙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전투·의무경찰 포함)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희, 신순옥 (2014).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1-25.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수규 (2025). 중년성인의 삶의 의미와 죽음수용과의 관계: 심리적 수용과 죽음공포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2008).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92-301.
- 김신미, 김순이 (2008).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81-291.
- 김연순 (2022). 중장년층의 웰다잉 인식과 죽음태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2020). 의미치료에 기반한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20). 중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에 대한 소고: 개인의 생애 전이와 이를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3(3), 179-217.
- 김재희, 김옥 (2014). 노인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4), 233-260.
- 김정하, 김혜연 (2025). 중년기 성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가정과삶의질연구, 43(1), 143-158.
- 김지현 (200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민경환 (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27.
- 김현숙, 김봉환 (2021). 사별한 부모의 사망 연령 시기를 맞은 중년여성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탐구, 7(3), 145-192.
- 남경민 (2017). 중년 성인의 죽음불안, 노화불안, 중년기 위기감, 실존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희선, 이영호 (2014).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263-283.
- 문소희, 황윤원, 유순화 (2021). 국내의 중년 대상 죽음 관련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28(1), 198-228.
- 박도위, 장유진 (2024). 성인 초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와 사회비교의 순차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1), 45-57.
- 박연화 (2011).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금선 (2024).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

- 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33(0), 19-32.
- 서장원 (2022).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 분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6), 985-997.
- 성진숙 (201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죽음태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 박영순, 김두길 (2017). 중년기 성인의 죽음불안 이해: Q방법론적 접근. 주관성 연구, 36, 69-90.
- 안애희, 최승우, 김수정, 손민 (2025). 중 · 노년기 대상 웰다잉 교육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26(1), 668-681.
- 안주현, 정남운 (2025). 성인의 죽음태도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잠재집단별 심리적 특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7(3), 903-932.
- 양성순 (2020).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 관계-생성감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아, 박기환 (2021). 한국 중년기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3), 509-528.
- 오주용 (2023). 죽음태도와 질병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주용, 안도연 (2023). 한국어판 죽음태도 척도 개정판(DAP-R)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2), 347-373.
- 오진덕, 정종원, 이용성 (2025).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교육학연구, 31(1), 93-118.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성경, 박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1997년-2013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441-465.
- 윤숙정, 이정미 (2017). 노인이 지각한 웰다잉(well dying)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노인의료복지연구, 9(1), 55-65.
- 이소정 (2025). 우리나라 노인의 죽음준비 유형과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52(1), 251-272.
- 이숙주 (2010). 중년기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신 (2024). 중장년 성인의 죽음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연령주의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왕은자 (2017).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81-503.
- 이은주 (2025). 한국사회의 세대별 죽음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3세대 죽음 인식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노년교육연구, 11(1), 252-272.
- 이재원, 김지원, 김태석, 김철민 (2019). 한국인의 죽음 관련 의사소통 및 죽음 관련 가치관 확산 정도에 대한 조사. 대한가정의학회, 9(3), 303-310.
- 이정은, 유지영 (2018). 정신적 웰빙이 노인의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9(1), 195-219.
- 이화진, 정영숙 (2018). 중년의 죽음태도와 행

- 북: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129-149.
- 이효진, 박희현 (2024). 중년기 성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의 관계: 영적 안녕감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5(6), 171-194.
- 임송자, 송선희 (2012).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43-255.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정영숙, 이화진 (2014). 중년기의 성숙한 노화와 죽음 태도 및 죽음 대처 유능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31-151.
- 조용기 (2016). 현대인에게 있어 웰빙(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의 진정한 의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8(1), 32-59.
- 채선희, 김진숙 (2020). 삶의 의미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39-468.
- 최경화, 유나현 (2023). 노화불안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 삶의 의미,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1), 3009-3022.
- 홍단비 (2025). 전생애 자기돌봄을 위한 글쓰기 치료의 이론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84), 337-356.
- 황보경, 심예린 (2022). 중년 성인의 죽음불안과 죽음수용의 관계: 의미추구 · 의미발견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3(4), 43-66.
- Allua, S. S. (2007). *Evaluation of single-and multilevel factor mixture model estim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Becker, D. (2006). Therapy for the middle-aged: The relevance of existenti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0(1), 87-99.
- Benton, J. P., Christopher, A. N., & Walter, M. I. (2007). Death Anxiety as a function of aging anxiety. *Death Studies*, 31(4), 337-350.
- Breitbart, W. (2017). Existential guilt and the fear of death. *Palliative & Supportive Care*, 15(5), 509-512.
- Bugen, L. A. (1980-1981). Coping: Effects of death education.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1(2), 175-183.
- Celeux, G., & Soromenho, G. (1996). An entropy criterion for assess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mixture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13(2), 195-212.
- Chonody, J., & Teater, B. (2021). Older adults' attitudes toward aging: An exploration of death anxiety and hope. *The Journal of Aging and Social Change*, 11(1), 1-17.
- Dziak, J. J., Lanza, S. T., & Tan, X. (2014). Effect size, statistical power, and sample size requirements for the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in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4), 534-552.
- Florian, V., & Kravetz, S. (1983). Fear of personal death: Attribution, structure, and relation to religious belie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3), 600-607.
- Fry, P. S. (2001). Predictor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s of older adults following spousal loss: An 18-month follow-up study of widows and widowers. *The Gerontologist*, 41(6),

- 787-798.
- Fry, P. S., & Debats, D. L. (2002). Self-efficacy belief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5(3), 233-269.
- García-Alandete, J., Gallego-Pérez, J. F., & Pérez-Delgado, E. (2009). Sentido de la vida y desesperanza: Un estudio empírico [Meaning in life and hopelessness: An empirical study]. *Universitas Psychologica*, 8(2), 447-454.
- Gesser, G., Wong, P. T. P., & Reker, G. T. (1988).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 (DAP).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8(2), 113-128.
- Guo, Z., Yang, T., He, Y., Tian, W., Wang, C., Zhang, Y., Liu, J., Liu, X., Zhu, X., & Wu, S. (2024). The relationships between suicidal ideation, meaning in life, and affect: A network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22(5), 2805-2824.
- Hong, M., Hong, S., Adamek, M. E., & Kim, M. H. (2018). Death attitudes among middle-aged Koreans: role of end-of-life care planning and death experienc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6(1), 51-68.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eyes, C. L. M., Wissing, M., Potgieter, J., Temane, M., Kruger, A., & van Rooy, S.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 in setswana-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5(3), 181-192.
- Khodabakhshi-Koolae, A., Falsafinejad, M. R., Zoljalali, T., & Ghazizadeh, C. (2024).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Effect on emotion regulation and death anxiety in older female adult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8(3), 1218-1231.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ittlefield, C., & Fleming, S. (1985). Measuring fear of deat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5(2), 131-138.
- Ma, H., Ren, L., Zong, X., Zhang, J., Zhang, Z., Jia, L., Chen, Q., & Niu, S. (2024). Death attitudes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 latent profile analysis. *Death Studies*, 48(4), 417-426.
- Menzies, R. E. (2018). Cognitive and behavioural procedures for the treatment of death anxiety. In R. E. Menzies, R. G. Menzies, & L. Iverach (Eds.), *Curing the Dread of death: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167-184). Australian Academic Pres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Park, C. L., & George, L. S. (2013). Assessing meaning and meaning making in the context of stressful life events: Measurement tools and approach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6), 483-504.
- Robbins, R. A. (1994). Death Competency: Bugen's coping with death scale and death self-efficacy.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49-179). Taylor & Francis.
- Sarpdağı, Y., Yiğit, M. F., Aydin, M. A., Yildirim, M. S., Çiftci, N., & Yildiz, M. (2025).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well being in the effect of spirituality on attitudes toward death in the elderly. *Psychogeriatrics*, 25(1), 1-13.
- Steger, M. F. (2012). Experiencing meaning in life: Optimal functioning at the nexus of well-being, psychopathology, and spirituality. In P. T. P. Wong (Ed.), *The human quest for meaning: Theories,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pp. 165-184). Routledge.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80-93.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r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Terva-Niemela, K. (2020). Death attitudes in clergy work: Death attitudes and their linkage to work orientation and wellbeing among the Finnish clergy. *Journal of Empirical Theology*, 33(2), 178-196.
- Wang, X., Zhang, J., Wu, S., Xiao, W., Wang, Z., Li, F., Liu, X., & Miao, D. (2021). Effects of meaning in life on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9(4), 1-11.
- Wong, P. T. P. (2007). Meaning management theory and death acceptance. In A. Tomer, G. T. Eliason, & P. T. P. Wong (Eds.), *Existential and spiritual issues in death attitudes* (pp. 65-88). Psychology Press.
- Wong, P. T. P., Rec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21-148). Taylor and Francis.
- Wong, P. T. P., & Tomer, A. (2011). Beyond terror and denial: The positive psychology of death acceptance. *Death Studies*, 35(2), 99-106.

원 고 접 수 일 : 2025. 08.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9. 30

게 재 결 정 일 : 2025. 11. 24

Death Attitude Profiles and Associ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Middle-aged Adults: A Latent Profile Analysis

Ire Shin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Eunha Kim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death attitudes among middle-aged adults based on five dimensions-fear of death, death avoidance, escape acceptance, approach acceptance, and neutral acceptance-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ross these profiles. A sample of 500 middle-aged adults was surveyed. Latent Profile Analysis revealed four distinct profiles: “Detachment” “Existential Acceptance,” “Anxious Avoidant,” and “Realistic Escape Acceptance.” The “Detachment” group neither feared nor actively accepted death, whereas The “Existential Acceptance” group positively embraced death, grounded in afterlife belief. In contrast, the “Anxious Avoidant” group showed high levels of death fear and avoidance, while the “Realistic Escape Acceptance” group viewed death as an escape from the pain of life, showing a high level of escape-oriented acceptan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across the profiles in aging anxiety, meaning in life, mental well-being, and perceived competence in coping with death.

Key words : middle-aged adults, death attitude, aging anxiety, meaning in life, death competency